

광주시 'AI반도체 메카' 프로젝트 속도 낸다

스마트가전용 AI SoC기술개발·AI반도체 실증지원 공모 2건 선정 국비 67억원 확보...전문기업·기관 참여해 응용서비스 실증 추진

광주시가 'AI(인공지능)반도체 메카'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시는 NHN 등과 손잡고 정부의 AI반도체 지원사업을 연이어 따내는 등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관련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정부 공모 사업 2건에 선정됐다.

광주시 산하 (재)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이 주관하는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광주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중인 NHN 주축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지역 가전산업의 스마트가전 제품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국비 45억, 지방비 10억, 민자 22억원)이 투

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시스템 구현과 반도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전 기업들을 수도권 팹리스 기업(반도체 설계·개발 전문)과 연계하고, 스마트가전용 AI반도체를 개발·실증하도록 유도한 점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국내외 35개의 특허를 보유한 영상처리 기반 반도체 팹리스(씨아이닉스,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 ㈜솔루션시스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 가전제품 기업 ㈜위니아답체,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넷온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NHN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비 22억원을 지원 받아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반도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AI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비메모리 반도체로, 다수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은 확보하고 있지만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와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NHN 컨소시엄은 광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인 NHN(씨)이 주관사이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출시한 SK텔레콤(씨)과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AICA) 등 전문 기업·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로 운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지사, 운수업계 애로 청취 차운송업계조합 이사장 간담회

전남도는 10일 운수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교통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운송업계조합(협회) 이사장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교통연수원 백종기 이사장(전남화물자동차운송협회 이사장), 장영조 부이사장, 여근하 이사, 김종원 이사, 이병주 감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교통연수원 임원이자 업체 관계자로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화물운송업 등 다양한 운수 분야 업계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급감과 운행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대표들을 위로했다.

전남도는 올해 경영 위기에 처한 버스 업계에 재정지원금 126억원,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119억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7억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 피해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를 정부에 강력 건의해 전세버스 등 버스 업계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특별재정지원금 등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전국 최대 국비 153억 확보

전남도가 정부의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가운데 전국 최대 사업량인 국비 15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사업량 6만 필지로 국비 113억원을 지원받고 국토교통부 추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량 2만 필지 국비 39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다른 광역단체의 한 해 사업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까지 전체 사업량 대비 9%의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4만 필지 75억원, 올해는 8만 필지 153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사업비는 17개 시도 총사업비 600억원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노력으로 7년 연속 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 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 82.6%, 필요성 92.6% 등의 수치를 보였다.

건물이 타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을 현실 경계에 맞춰 등록하거나 출입로가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기존 지적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적 측량과 등기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큰 만족을 얻고 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그동안 해결이 곤란했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재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져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1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회의장, 김순은 대령소속 자치권위원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광주대 최우수 전남대기술지주 우수 지난해 470억 매출·198명 고용

광주시가 지역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1억원)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1년차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창출 등을 도왔다.

광주대학교는 지원기업 400억원 이상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 141명, 투자유치 14억원을 달성했으며,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원기업 70억원 이상 매출, 신규 고용창출 57명, 투자유치 100억원 달성 등 창업지원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2020

년 사업 평가에서 광주대학교는 '최우수',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사업비 총 46억7200만원(국비 44억7200만원, 시비 2억원)이 투입되며, 광주대학교는 이날 현재 26개,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순항한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특산 '편백오일'로 집먼지진드기 잡는다

전남바이오진흥원·명품 협약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가 장성 지역기업인 (주)명품과 편백 오일을 포함하는 '집먼지진드기 제거 조성물 특허 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집먼지진드기 천연살충제 상용화에 나섰다.

0.3~0.4mm 크기의 집먼지진드기는 주로 침구류에 서식하면서 아토피,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특허기술로 만든 편백 오일은 진드기의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페닐, 테르펜, 퀴논 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어 친환경 진드기 기피제와 마비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나노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초음파 및 나노분산 기술을 이용해 편백 오일을 생산하면 집먼지진드기 퇴치 효과가 뛰어나 기존 화학살충제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성의 대표 산림 자원인 편백나무와 관련한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만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신협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금 인출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